



한국영양사료연구회 사료회관 준공기념 기술세미나 및 컴퓨터사용을 위한 연수회

원료사료의 품질관리등 14편의 연구논문 발표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 한인규)는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 및 미국대표협회 한국지사(대표 이경원)와 공동으로 1984 영양사료 기술 세미나 및 컴퓨터 사용을 위한 연수회를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강남구 서초동 사료회관에서 가졌다.

6월 8일 세미나에서는 원료사료의 품질관리(미연방 곡물검사소 슈이박사), 사료관리법 개정방향(이범석 농수산부 사료과장), 곡류사료 다변화를 위한 자료(백인기박사 중앙대 교수), 곡물 저장 사일로의 현황 및 품질관리(박경규박사 경

북대 교수), 액상사료 첨가기술(장동일박사 충남대교수), 버퍼제의 작용기작(하종규박사 서울대교수), 반추가축에서의 질산염 대사와 중독문제(손용석박사 고려대 교수), 칼슘공급제의 입자 및 수준(이규호박사 농촌진흥청), 사료용 곡물의 수급방향(권배전무 한국사료협회), 사료첨가제의 사료현황 및 문제점(이희구전무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성단백질 사료의 수급현황(유동준전무 한국단미사료협회), 식물성단백질 사료의 수급현황(이경원박사 미대두협회 한국지사) 등이 발표되었고, 6월 9일 컴퓨터 연수회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배합율 작성방법(정영근, 김창원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사료공장경영을 위한 컴퓨터의 사용(보에커박사 프로테인 브랜더사 부사장) 등이 발표되었다.

백인기박사는 곡류는 배합사료의 가장 중요한 원료임으로 효율적인 선택과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곡류의 영양적 실제 사용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는 컴퓨터배합을 통하여 잠재가격을 산출하여 적정구

축산정보

매가격을 책정하고 가축병 사료종류별로 유리한 곡류를 선별사용하여야 하며 선별된 유리한 사료곡물을 적시에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유통과 행정상의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규박사는 옥수수를 위주로 한 사료용 수입곡물의 저장 및 품질관리개선을 위해 곡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과 현상을 수입곡물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현 국내 사일로 시설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사료용 옥수수는 수송 및 저장기간이 안전저장기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엄청난 품질저하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료용 수입곡물의 작업중 부스러진 옥수수 잡초 및 이물질 등의 함유량은 선적전과 하역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곡물의 저장중 품질을 저하시키는 여러가지 현상중 강철 벽면안에 응결되는 수분은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발생을 촉진시키며 국내 배합사료공장의 저장 사일로의 대부분은 평면형 강철 빈이고 이중 약 40%정도가 통풍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통풍장치가 되어 있는 사일로 조차도 환풍기의 선정 잘못과 이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합사료 공장의 저장 사일로의 수와 크기는 소수 대형화로 되어있고 이 때문에 여분의 사일로가 없어 주기적인 청소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워 잔여 비유동 곡물의 부패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 및 수입곡물의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지어 양질의 곡물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저장시설의 개선 및 앞으로 신규저장시설 특히 설치비용이 저렴한 강철빈(저장통)의 시설에 대한 설계 및 작동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장동일박사는 액상사료 첨가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액상사료

첨가체계를 분석하고 액상사료 첨가 기술향상을 위해 사료가공 공장에서 해야 될 일은 첨가하여야 할 액상사료의 물리적성질과 화학적성질을 분석하여 이해하여야 하며, 현재의 첨가체계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과 체계를 기초로하여 액상사료와 첨가체계의 종합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중규와 한인규박사는 버퍼제의 사용유무나 종류 수준을 결정할 때는 사료의 입자도, 사료내 산의 함량, 중화능력, 동물의 생산능력 및 생리적 시기등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며 종류별로 그 작용이 상이하고 동물의 기관도 상이하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버퍼제의 종류를 선택함이 현명하다고 발표했다.

손용석박사는 반추동물에서의 질산염대사와 급성중독문제를 개괄하여 서술하였는데 질산염의 대사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영농가의 입장에서 질산염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독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며 초지에 대한 시비나 가축영양관리면에서 이점을 인식하면서 방향을 모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배전무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사료곡물의 다양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는 첩경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희구전무는 사료첨가제는 축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큰 역할이 기대되거나 효과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동준전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어리의 다획으로 사료축산업계의 기여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단백질사료의 수급제도를 마련하고 살찐 상태의 정어리 복상을 저지하여 안보적차원까지 달성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축산정보

이경원박사는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물성박류는 약9,000~9,500만톤으로 이중 대두박이 6,00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금년들어 운임포함가격 240-250달러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국제 대두박가격은 당분간 약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 보고 우리나라 대두박의 수요량은 연간 72만톤으로 추정되나 국내 3사(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사)에서 사료업계에 공급하는량이 83년기준으로 약 40만톤이므로 그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원 정영근박사는 사료배합비의 작성 및 그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컴퓨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나 사료배합의 전산화 또는 전산기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용의주도한 계획이 필요하며 필요에 합당한 기종 및 프로그램의선택이 중요하고 자료의 정확성 및 신빙도를 높이고 전산기의 활용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인규박사는 고유한 성질과 특이한 작용기전을 가지고 장내 유해 미생물의 군집형성을 방해하는 항생제는 장벽과 흡수진작을 통한 영양소의 절약효과와 유해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억제, 독소생성의 방지 및 반추위내 휘발성지방산의 경향을 변화시킴으로서 닭 돼지 축우의 성장촉진과 사료효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우수한 첨가제로 여겨진다. 또한 항생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제는 질병의 예방및 치료와 함께 적정량을 병용함으로써 상호효과를 누릴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양체계에 부합되는 항생제 및 화학제제의 첨가수준과 첨가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제제의 닭 돼지에 대한 효과는 양축가가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으나 축우에 대한 효과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한인규 오상집 김춘수 박홍석 맹원재 신형태 김창원 유창엽 박태진 등은 자돈사료에 사료향

미소인 피드베타를 0.1% 첨가면 증체율, 사료섭취량 사료효율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으며 1kg 증체에 대한 사료비의 경제성을 비교할 때 갓난돼지와 젓먹이 사료에 설탕보다도 슈가메이트를 첨가하는 것이 사료비를 절감하는데 유리하였고 축종과 나이에 알맞게 특수개발된 사료향미소를 이유자돈사료에 넣음으로써 돼지의 성장과 사료섭취량이 각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또한 브로일러와 송아지 비육우등에 대해서도 향미소 급여수준 및 급여효과중 조사했는데 이들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향미소가 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면에 있어서 개선효과를 보이는 것은 확실하나 정확한 작용기작은 아직 미규명상태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하며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육성돈 산란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공판장 한때 경매중단

축공 지육중매인 이윤 박하다고 경매불참

지난 5월 28일 축협 서울공판장에서는 한때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반인으로서서는 아주 작은일이고 양돈인으로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매참인(축협 직매소에 고기를 사주는 사람)과 중매인(일반 정육점에 고기를 사주는 사람) 사이에 이윤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나타나 착하게 살아가는 축산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 주요원인은 일반중매인이 같은 도축장의(서울의 경우 협진,우성) 중매인들보다 지육 kg 당 100원정도 비싸게 구입하여 소매점에 넘기기 때문에 실제 마진이 2개의 민간축장보다 낮아 일어났다. 아마도 축산인들과 일반소비자(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서울의 돼지고기 파동

또 한차례 품귀현상이 일어났겠지만) 들은 서로 동병상린이었으리라.

더 한차례 거슬러 올라간다면 출하물량의 감소로 인해 중매인의 적은 이윤도축순위의 기여도가 주 원인이었다.

도축의 순서를 기다리는 (원매자)사람은 많고 축협에서 도축물량은 한정시켜 놓아 감정이 누적되어 불경매사태가 결국은 꼬리를 물어 배정물량확대라는 근원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평균 지육kg당 1,850원으로 떨어져 사육비에 미치지 못하는 선까지 도달 되었어도 오로지 제 2의 식량을 공급한다는 축산인의 대명제아래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리며 소생할 날만을 기다리는 순수한 축산인앞에 이윤경쟁으로 인한 씹박질은.....

결들여 도축두수의 제한문제는 도부의 인력 부족과 특수한 직업병(늑막염, 탈골, 디스크)을 앓고있고 축협 및 단위농협의 출하배정제 실시로 도축장 근교에서 차상계류를 막는다는 근사한 아이디어와 사료비 운임비 등의 과다지출을 사전 방지한다는 대명제아래 돼지 2마리 팔아 자식 등록금 마련한다는 소규모 부업농은 늑대와 소연처럼 거짓말장이가 되어 버렸다.

반대로 축공의 어려움도 있다. 10여년전의 시설과 설비로(74년 돼지 300두 소 140두 도축) 현재 3~4배에 달하는 물량을 감당키 어렵고 설치된 기계가 과중한 부하로 쉽게 마모되었으며 신규 교체된 기계가 운영미숙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물에 빠진듯한 땀의 열기로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 모두가 이해는 한다.

그러나 축공은 축산협동조합법 제 6조 최대봉사의 원칙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축산인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들은 도와줄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모색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한국축산학회 제41회 학술발표회 가져

연탄재급여로 철분주사대체효과 얻어

한국축산학회(회장 박항균)는 제41회 학술발표회 겸 제35회 총회를 지난 6월23일 성균관대학교 농과대학 학생회관에서 개최했다.

영양 사양 육종 번식 가공 초지 사료부문에서 총 7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중 진주농림전문대학 정현승교수는 연탄재 급여가 돼지의 성장 육성 비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포유동물 자돈에 철분주사대용으로서의 연탄재급여 효과를 고찰한 결과 철분주사대용으로서 연탄재급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 ① 책 제 목 : 알기쉬운 돼지 질병
 - ② 수록내용 : 바이러스성·세균성·호흡기·원충성·피부병등 23개 돼지 주요질병을 원색 화보와 함께 수록
 - ③ 집 필 자 : 권영방(가축위생연구소 병리과 연구관), 권혁진(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상무), 김봉환(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김영옥(용인자연농원 수의과장), 마점술(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박용복(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가나다순)
 - ④ 책부피 및 크기 : 본문 75장, 원색화보 72장, 크라운판
 - ⑤ 1권당 보급가격 : 5,000원
 - ⑥ 발행일자 : 1984년 7월 5일
 - ⑦ 신청접수처 : 본회 홍보부(전화 753-3428)
 - ⑧ 신청마감일자 : 1984년 9월 30일 한
-